

LNG는 뜨겁고, 선가는 오르고, 주가는 바닥이고

코멘터리

비록 신조선가지수는.....

지지난주 LNG선 신조선가 상승 이후, 지난주말 선종별 선가는 모두 보합이었고, 신조선가지수도 또 129p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① 대한조선이 수주한 아프라막스 탱커 신조선가가 기존 \$48m 대비 \$4m 오른 \$52m으로 잡힙니다. Scrubber 장착 \$2m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신조선가 상승으로 보입니다. 중소형 조선사의 중형선 선가도 오릅니다.

② 이미 현대중공업이 Vitol로부터 \$92m 이상 VLCC를 수주했지만, 대우조선해양도 \$92m VLCC 수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85m 이하에서 7척을 발주한 Hunter가 옵션 3척을 보유 중인데, 옵션 만기를 9월17일로 1달 연기했습니다. 앞 호선보다 높은 \$92m이 옵션행사 가격입니다. 만약 9월에 옵션을 행사한다면 VLCC \$92m이 평균이 됩니다. 현재 클락슨의 VLCC 선가는 \$90m입니다.

③ VLCC 중조선가/신조선가 Ratio가 89/90으로 강세 신호를 줍니다.

④ 삼성중공업의 Celsius LNG선 수주 공시가격이 \$186.6m으로 좋았는데, 더구나 LNG-Fuel이 아닌 Scrubber를 채택했기 때문에, 실질 선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LNG선 수주 강세...

⑤ 7월까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LNG선 수주가 각각 12척 ~ 14척으로 강했던 것에 반해 삼성중공업은 4척에 그쳤습니다. 이는 BIG3간의 경쟁력 차이가 아닌 영업전략 및 타이밍의 차이일 뿐이라고 자주 강조해왔습니다.

8월 중순 삼성중공업은 Gaslog의 LNG선 2척, 그리고 신규로 LNG선 시장에 진입하는 Celsius로부터도 LNG선 2척 + 옵션 2척을 수주했습니다.

올해 LNG선 발주는 50척 이상이 충분해 보입니다.

⑥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서 LNG선 16척이 필요한데, 선사들의 용선 입찰을 10월부터 본격화한다는 뉴스입니다. 선정된 해운사는 한국 BIG3와 일본 2개 조선사 중 골라서 건조해야만 합니다. 2019년 한국 조선사는 러시아 Artic LNG 15척에 모잠비크 16척까지 최소 30척 이상이 확정적입니다.

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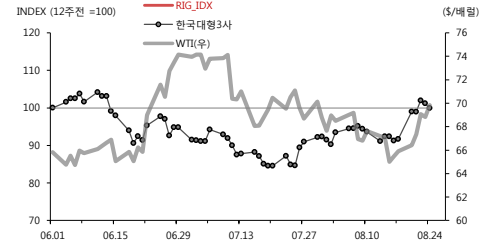
신조선가 지수만 제자리일 뿐 선종별 신조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LNG선 시장도 비단 올해만이 아닌 2019년 강세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조선주는 지난주 살짝 반등하는 등 마는 등 했는데, 여전히 PBR 0.6배대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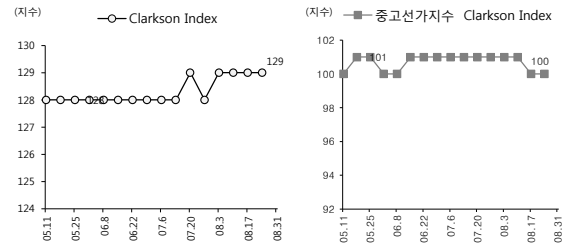
조선업중 비중확대 의견, 선호주로서 수주 쏠림의 현대미포조선, 해양 파이프라인, LNG 반격의 삼성중공업 추천 의견을 견지합니다.

대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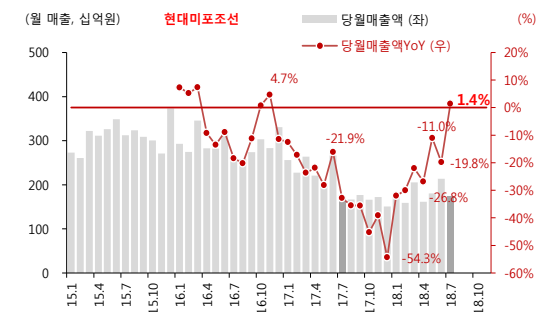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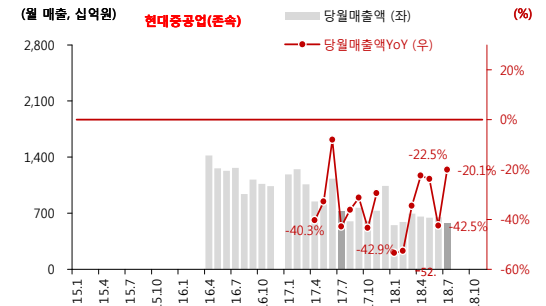
유가, RIG PLAYER, BIG3



신조선가지수 제자리



조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월 매출: 미포 턱업!!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실질적 신조선가 상승

- △ Hunter의 DSME에 VLCC 옵션 3척 기한 9월17일로 연장: 행사 시 \$92m
- △ Enesel, 대한조선에 아프라막스 탱커 2척: 기존 \$48m에서 \$52m으로

LNG선!

- ▲ 모잠비크 LNG의 LNG선 발주 프로젝트 개시: 야드, 선주 재평가
- ▲ Celsius Tanker,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발주하며 시장 진입
- ▲ 북미 Gaslog,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추가 발주

해양W

- ▲ Umm Shaif 프로젝트에서 6개사 경합: 현대중공업 참여
- ▷ Rosebank 현황: 연말 EPC사 결정 짐작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지수 129p 제자리: 모든 선종 선가 보합

△ Hunter의 DSME에 VLCC 옵션 3척 기한 9월17일로 연장: 행사 시 \$92m

- DSME에 7척의 VLCC를 발주하며 옵션 3척을 가진 Hunter는
- 옵션 만기를 8월15일에서 9월17일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짐
- 앞서 7척은 \$82.5m, \$85.5m에 수주했지만, 옵션의 행사가격은 \$92m: 2021년 상반기
- >> 현대중공업은 이미 Vitol VLCC를 \$92m 이상에 수주했고, DSME의 옵션이 9월에 행사되면 VLCC \$92m이 널리 확정됩니다.



(05월3주) ▲ 지난주 대우조선해양의 Hunter VLCC 3척에 또 따른 옵션 3척에서, 신조선가 상승

- Anne-Fredly의 Hunter는 대우조선해양에 옵션을 행사해 VLCC 3척(4호선~7호선)을 추가 발주했고, 또 추가로 옵션 3척도 확보: 행사 만기는 8월 15일
- 그런데 이 옵션의 신조선가는 scrubber 포함 \$92m으로 앞의 7개 호선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함
- 1~4호선은 확정 \$82.8m + scrubber \$2.7m이었고, 5~7호선은 \$82.8m + scrubber \$2.7m으로, 옵션이 행사될 경우 신조선가는 7.6%나 상승하게 되는 것
- 5~7호선은 2020년 5월, 6월, 8월 인도되며, 잔여 옵션의 인도는 2021년 상반기 인도 예정인 것으로 전함
- 한편 Fredly의 Apollo Asset의 신조투자는 Hunter로 이전되었고, Hunter는 7개 선박의 선수금 납입을 위해 \$65m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 중

△ Enesel, 대한조선에 아프라막스 탱커 2척: 기존 \$48m에서 \$52m으로

- NS Lemos의 Enesel은 한국 대한조선에 \$104m의 아프라막스 탱커 2척을 발주: 2020년 상반기 인도
 - Scrubber를 장착하고 신조선가는 \$52m: 강통 Tier-II \$48m인데, Scrubber 비용 \$2m을 포함해도 양호함
- >> 중소형 조선사의, 아프라막스도 선가가 올랐습니다.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 시추

▲ Umm Shaif 프로젝트에서 6개사 경합: 현대중공업 참여

-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의 15억\$ 이상 Umm Shaif gas cap condensate 개발 프로젝트에
- 5~6개사가 PQ에 참여했고, 다음달 정식 입찰이 시작될 예정
- McDermott, NPCC, TechnipFMC, Petrofac, Saipem이 PQ 참여를 밝힌 가운데, 한국 현대중공업의 참여 여부는 미확인
- 2~3개의 숏리스트 EPC사를 추려, 디자인 경합을 거쳐 EPC사를 선정하는 일정: FEED 경합은 연말에 시작
- 가동은 애초 2025년이 타겟이었지만, Fast-Track으로 2022년을 목표로 함

(15년9월) UAE Adma-Opco Umm Shaif에서 300천bd 증산 계획

- Adma-Opco(Adnoc 60% 지분 보유)는 2020년 1백만bd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추가로 300천bd 투자 계획
- 14년10월부터 Lulu 필드에서 5,000bd 생산이 시작되었는데 올해말 22천bd, 2018년 105bd까지 증가 예정
- 30십억\$을 투자한 Nasr2(NPCC, HHI, Technip 주주)dptjeh 65천bd 예정
- 현재 UAE의 오일 생산은 2.8백만bd(90%가 Abu Dhabi산)인데
- 내년 추가로 25십억\$를 투자해 2018년까지 3.5백만b/d 달성 예정
- > Nasr, Umm Shaif와 같은 UAE 천해 Offshore 발주를 내년에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GD-2 사업에 Spain의 Tecnicas Reunidas가 우세

(07월3주) △ 아부다비 Adgas의 IGD-2 확장 입찰 경과

- 최대 6개 업체가 Commercial offer를 7월9일 제출했고, 8월초 발주처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
- 사업 지분은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의 자회사 Adgas가 70%, 일본의 Mitsui가 15%, BP 10%, Total이 5% 보유
- 기준 1) 인도 Larsen & Toubro (L&T) + US-based CB&I(McDermott가 인수), 2) Tecnicas Reunidas(스페인), 3) Technimont(이탈리), 4) Fluor(미국), 5) Petrofac(영국) + NPCC(아부다비), 6) Archirodon(그리스), Worley Parsons(호주)
- + 현대중공업의 6개 컨소시엄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입찰 참여 여부는 알려지지 않음
- Petrofac + NPCC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

(04월4주) △ 아부다비 Adgas의 IGD-2에 6개 컨소시엄 경합: HHI

▷ Rosebank 현황: 연말 EPC사 결정 짐작

- 올해 4월 Clarification meetings를 거쳐, 대우조선해양+Wood vs. Sembcorp+Worley Parsons가 경합 중
- 사양: 100천b/d, 105MCFd, 260천b/d 워터 인젝션, 950천 barrel 저장
- FID는 2018년말 예정이었지만, 2019년으로 밀릴 것으로 관측, FEED는 2018년말 마치고,
- 이후 EPC 선정 컨소시엄이 2021년3분기까지 상세 수행을 진행: 2024년 4분기 첫 오일 생산
- >> FEED 마감이 2018년말로 설명된 바, DSME vs. Sembcorp은 연말에나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08월3주) △ Chevron의 Rosebank FPSO, 곧 영국 정부에 승인 요청

- Chevron은, 파트너 Suncor Energy, Siccar Point Energy와 합의를 마치고, 영국 OGA(Oil & Gas Authority)에 사업 진행 의사를 밝힘
- Offshore Installation은 2022년 여름, 첫 오일 생산은 2024년 4분기 예정: 88천b/d~100천b/d 생산용량 예정

(04월5주) ▲ Chevron의 Rosebank FPSO: 7월~3분기에 결정

- 4개 입찰처가 3월에 기술/가격 오퍼를 제출했고, crucial meeting이 열린 것으로 전함
- 4개 입찰처는 한국의 BIG3와 싱가포르 Sembcorp: Chevron은 한국을 선호한다는 설명
- 대우조선해양-Wood, 삼성중공업-Aker Solutions, 현대중공업-WorleyParsons, Sembcorp도 WorleyParsons의 경합 구도임
- 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7월에 선정될 것이라고 관측했고, 다른 관계자는 최종결정이 3분기까지 일꺼라고 설명
- FID는 올해말이나 2019년초
- 3분기 중 결정에서 2개 숏리스트를 추려, 좀더 고민한다는 설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조기 LOI를 맺고 바로 설계를 시작한다는 관측으로 나뉨
- >> 빠르면 7월에, BIG3 중 한곳의 EPC 계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03월3주) ▲ Chevron의 Rosebank FPSO: 4사 경합

(17년11월) △ Rosebank FPSO, 2018년3월 입찰 시작

△ Browse pre-FEED 경합: FID는 2021년

- IntecSea Engineering이 conceptual work를 마쳤고, 이제 pre-FEED 입찰이 시작됨: 몇주전 ITB(Invitation To Bid) 발부
- Fluor, KBR, TechnipFMC, Wood Group이 경합 중이며, pre-FEED 1년을 마친 후, 4Q19 FEED가 시작될 예정
- 사업의 FID(Final Investment Decision)은 2021년 예정
- 2기의 9만톤 Floater가 투입되어 10~12MTPA의 가스를 생산 목표
- Hull은 한 곳 야드에서, 탑사이드는 여타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허엘가 될 것임
- Woodside의 CEO는, 예전에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한국 조선사들이 담당해왔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원가 구조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Woodside 30.6%, Shell 27%, BP 17.33%, MiMi 14.4%, PetroChina 10.67% 지분 보유
- >> 과거에도 Woodside는 장차 제작을 중국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 >> 협상용 카드일수도 있고, 진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 >> EPC 발주가 2020년~2021년으로 짐작되는 바, Shell과 ExxonMobil의 Penguin FPSO, BP의 Tortue FPSO를 중국이 잘 소화해낼지에 따라, 건조 국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 Ocean Rig, 쉬던 드릴쉽 2기 투입처 정해질 듯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드릴쉽 2기 투입처가 곧 정해질 수도 있다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설명
- 2012년 이후 마켓 인콰이어리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도 설명



▶ LNG

▲ 모잠비크 LNG의 LNG선 발주 프로젝트 개시: 야드, 선주 재평가

- 2016년에 PQ를 마친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는, 야드, 선주 재평가를 개시하며 신조 투자를 향해 한걸음
- 2016년에는 한국 BIG3, 일본의 Mitsubishi, Kawasaki HI가 꼽혔고,
- 용선 발주할 선사는 23개 정도가 PQ를 통과했었지만, 이번에 9개 선사를 재평가 예정
- 12.88MTPA의 train에서 16척의 LNG선 발주가 기대
- 지난달 버전으로는, 곧 ITB를 발송하고 2019년 상반기에 FID, 전후로 선정된 선사들이 PQ를 통과한 조선사들 중 한 곳을 선정하는 일정
- 본격 입찰은 10월부터 시작할 예정
- 사업은 최근 6.7MTPA의 sales agreement를 따냈고, 일부는 8.5MTPA까지 장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져, FID가 무난할 전망
- 발주될 LNG선의 인도는 2023년이 될 전망
- 모잠비크 프로젝트는 장차 50MTPA까지 확대 가능한 구조
- 사업처는 ENH가 15%, Mitsui & Co 20%, PTET 8.5%, Beas Rovuma Energy Mozambique, BPRL Venture Mozambique & ONGC Videsh가 합쳐서 10%를 보유
- >> 최근 일본 야드들의 LNG선 인도 연기 등으로 한국 BIG3 수주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장차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13MTPA에서 50MTPA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은, 즉 16척 다음에도 45척 이상의 LNG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Maran Gas, DSME에 발주한 LNG-FSRU을 LNG선으로 계약 변경

- 2017년 2월에 발주해 2020년 3월말에 인도 예정인 FSRU 1기를 LNG선으로 변경
- 신조 투자 후 FSRU 투입처를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실패: 최근 호주 AGL Energy와 계약 체결 임박까지 갔지만 실패

△ Celsius의 신조투자는 투기 발주

- 이번 발주는 확정 용선 계약이 없는 투기발주인 것으로 알려짐
- 몇년전부터 LNG 시장 진입을 준비해 옴

▲ Celsius Tanker,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발주하며 시장 진입

- Celsius Tanker는 확정 2척 + 옵션 2척으로, 2척에 \$370m 계약: 2020년 12월 인도
- Mark-III Flex 보냉 시스템에, scrubber를 장착
- 기타 제원은 BWTS와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연비 개선을 위한 SAVER Air(MSC 23,000teu에도 채용)
- >> 신조선가가 \$186.6m로 좋았을 뿐더러, LNG-Fuel이 아닌 Scrubber이기 때문에 실질 신조선가는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북미 Gaslog,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추가 발주

- 초기 북미 선주의 2020년 인도 \$368m 2척이 알려진 후, 이 발주처가 Gaslo인 것을 확인됨
- Gaslog는 Cheniere와의 용선을 바탕으로 2020년말 인도로 174k-CBM LNG선 2척 건조계약을 체결
-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올해 33척 37억\$를 수주

▽ 중국 Jovo, 로컬 Jiangnan에 80k-CBM 중형 LNG선 발주

- 중국 LNG 트레이더 Jovo는 중국 Jiangnan SY에 최초로 80k-CBM(Sino-Flex)의 중형 LNG선을 발주: 2021년 하반기 인도
- 여태 중국의 유일한 LNG선 건조처는 후동중화였지만, 중형이긴 하지만 Jiangnan이 최초로 LNG선을 수주

△ Hoegh, 추가 FSRU 발주를 위한 자금 조달

- Hoegh는 FSRU9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마무리했고 FSRU10도 자금 조달에 상당한 진척을 보임: FSRU9는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11월 인도 예정
- FSRU10은 2019년5월 인도 예정이며 \$412m의 자금조달이 진행 형
- 현재 2019년~2020년 가동을 희망하는 호주 AIE 등과 같은 FSRU 도입처와의 협의를 하고 있으며,
- 2021년 가동 예정인 프로젝트 신규 2개에서 FSRU 입찰을 하고 있음
- >> 이 2021년 가동 프로젝트가 FSRU 신규 발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Hoegh가 아니라 다른 FSRU_플레이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04월4주) ▷ 용선처 정해지지 않은 FSRU 1년새 두배 늘어난 8기

- 용선이 결정되지 않은 FSRU가 12개월 전 4기보다 두배 늘어난 8기로 집계됨
- 8기 중 6기는 건조 중, 2기는 현존 FSRU: FSRU들 중 최소 1기는 LNG Carrier로서 활동 중
- FSRU 운임도 탄탄한 6자리에서 최근 \$100천/일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고,
- 그러나 시장 컨설턴트에 따르면, 투입 예정 프로젝트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 지난주에도 Cuba, Sudan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협의 개시
- 그러나 장기 계약 보다, 최근 크로아티아, 홍콩과 같이 3년~7년의 비교적 짧은 프로젝트건들도 잡힘
- 8기의 미용선 선주는, Hoegh가 2기(2018년, 2019년 인도), BW 1기(2019년), Maran이 1기(2020년), Dynagas 2기(2021년)와
- Golar의 현존선 2기: 2015년 건조 개조선은 Trading, 1981년산 개조선은 Laid-up
- FSRU는 지난 15년간 38기까지 성장: 29기 Existing, 3기 개조, 9기 건조 중

▶ 기타

▲ 글로벌 수주잔고 14년 이래 최저

- 올해 LNG선, 탱커 일부 선종의 발주에도 불구하고 CGT 기준 잔고는 14년 최저를 기록
- CGT 기준으로 2014년3월 대비 38%나 하락해 잔고/선대 비율도 9.9%에 불과
- 한국의 수주잔고는 YoY 10% 증가했고, 2020년부터의 인도가 40%를 차지해, 한중일 중 가장 "back-Heavy"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① GasLog → Samsung HI, LNG(174k) 2척

- 아래의 수주설 참조

② Celsius Tankers → Samsung HI, LNG(180k) 2척

- 아래의 수주설 참조

③ Delos Shipping → Samsung HI, GASC(93k) 3척

④ Delos Shipping → Hyundai HI (Ulsan), GASC(93k) 3척

(08월2주 플레쉬) ▲ 미국 Delos,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VLEC 12척 나누어 발주, 최대 15억\$

- 미국의 PE인 Delos Shipping은 최대 12척, 15억\$ 규모의 VLEC(Very Large Ethane Carrier)를 발주: 척당 \$125m

- 93k-CBM 크기에 현대중공업에 확정 3척 + 옵션 3척, 삼성중공업에 확정 3척 + 옵션 3척

- 최근 삼성중공업이 공시한 북미 특수선 3척, \$370m(척당 \$123.3m)이 셔틀탱커가 아니라 이 대형 에탄운반선일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함: 현대는 본 계약 전인 것으로 보임

- 조선사 선정에서 발주처는 2020년 중반 인도를 원했지만, 중국 조선사들은 30개월의 긴 공기여서, 한국 조선사들이 따내게 됨

- 탱커는 현대중공업은 Membrane과 Type B 탱커 모두 제작 가능했지만, 발주처는 Membraned을 선택

- 용선처는 중국의 Zhejiang Satellite Petrochemical이며, 북미 자회사가 3월 ETN(Energy Transfer Partners)의 Orbit Gulf Coast NGL Exports JV에 가입한 바 있음

>> 삼성중공업이 2014년 인도 릴라이언스 용선으로, VLEC 6척을 수주 및 인도한 이후, 오랫동안의 VLEC 발주입니다. LNG선과 거의 유사한 스펙에, 신조선가는 딱 절반입니다.

>> 신조선가가 2014년의 \$121m와 비슷해서, 최근 선가가 떨어진 LNG선보다 양질 수주로 보입니다.

(14년7월)▲ 삼성중공업 VLEC(추정) 6척, 총 \$720.5m 수주

⑤ SK Shipping → Hyundai Mipo, PTK(50k) 1척

(08월1주 플레쉬) ▲ SK해운,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1척 발주

- SK해운은 미국 코모디티 트레이드 Cargill 용선(5년)으로 50k-DWT MR탱커 1척을 현대미포조선에 발주: 옵션 없음

- 2019년 하반기 인도에, 신조선가는 \$38m로 알려짐: 최근 비슷한 선형의 Dayrate는 \$16,000/day

- 최근 Cargill은 일본 Mitsui & Co.에 3척, Top Ships에 1척, 그리스 Empire Navigation에 4척의 MR탱커를 용선발주한 바 있음

>> 미포의 MRO이 작년 비나신 \$32m, 올해초 \$35m를 거쳐, 7월 \$37.5m, 그리고 이번엔 \$38m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⑥ XT Shipping → Hyundai Mipo, CONT(1,800-teu) 2척

- 아래의 수주설 참조

⑦ Cardiff Marine → Hyundai HI (Ulsan), LNG(174k) 1척

(07월1주 플레쉬) △ Total, NYK와 LNG선 용선 투자 협의 중: HHI에 옵션 보유한 SCF, TMS Cardiff ...

- Total이 LNG선 추가 용선을 준비 중이었고, 작년말 Total 용선을 따낸 SCF, TMS Cardiff보다는 일본 NYK랑 협의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함

- SCF와 Cardiff는 작년말 용선 계약에서, 현대중공업에 신조 발주를 하면서, 옵션을 각각 보유 중

- NYK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프랑스의 LNG 선박관리 회사인 Gazoecean의 지분을 보유해, French Tax Lease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최근 EDF의 용선도 비슷한 스킴으로 따낸 바 있음

- NYK와의 협의가 신조인지, 기존 선박에 대한 것인지지는 불투명

- 작년말 SCF와 Cardiff의 용선료는 \$63,500/day였지만, 이후 시장 용선료는 \$100,000/day로 오른 상황: 이와 함께 LNG선 신조 선가도 \$180m에서 \$185m+알파 정도는 될 것으로 전함

>> 신조선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⑧ Zodiac Maritime → Hyundai HI (Ulsan), CONT(14,952teu) 4척

(05월1주 플레쉬) ▲ Zodiac, 현대중공업에 옵션 4척 행사해 총 9척, 4억\$ 발주

-4월에 현대중공업에 5척의 14,300teu를 발주한 Zodiac은

-동선형 4척을 추가 발주: 2020년 중반 인도

- 4,368억원, \$407m인데, Extras를 포함할 경우 \$420m에 이를 것으로 전망

-Zodiac은 41척의 33.8만teu 선대를 운영하는 선사로, 현재 5,300teu~19,900teu의 11척을 건조 중

(04월2주) ▲ Zodiac → 현대중공업, 14,300teu 5척, 5억\$ 계약

- Zodiac은 알려지지 않은 메이저 선사와의 장기 용선계약을 바탕으로

- 현대중공업에 Neo-Panamax 컨테이너선 5척 발주: - 옵션 여부는 불투명, 2019년 6월~11월 인도

- DF-Ready 타입으로, 척당 \$100m를 살짝 넘는 수준으로 전함

- 작년부터 11,000teu, 척당 \$90m의 발주설이 알려진 바 있음

⑨ Enesel SA → Daehan Shipbuilding, TK(114k) 2척

△ Enesel, 대한조선에 아프라막스 탱커 2척

- NS Lemos의 Enesel은 한국 대한조선에 \$104m의 아프라막스 탱커 2척을 발주: 2020년 상반기 인도

- Scrubber를 장착하고 신조선가는 \$52m: 강통 Tier-II \$48m인데, Scrubber 비용 \$2m을 포함해도 양호함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Yang Ming의 피더선, CSBC로 확정

- 2,800-teu 10척을 CSBC에 확정 발주: 옵션 3척도 딸림
- 2020년 2분기 인도 예정: 신조선가는 \$37m~\$38m으로 초기 얘기되어온 것보다 높음

▲ Evergreen의 피더선 36척 투자는, 신조선가 상승 때문에 용선발주로 가닥

- Evergreen은 36척: 2,500-teu 14척, 1,800-teu 24척을 용선발주 결정: 발주처는 Evergreen Marine LTD(홍콩)과 Greencompass Marine으로 나누어 진행
- IMO Tier II 스펙이지만 신조선가는 1,800-teu \$28m, 2,500-teu \$34m으로 양호
- 신조 투자 추진 과정에 신조선가가 올라서, Evergreen은 용선 발주로 선회하게 된 것으로 전함

▲ AET, Shell 용선으로 셔틀탱커 2척 추가 발주 계획

- 말레이시아 MSC의 탱커 선사 AET는 Shell의 Brazil Shipping Limited와 152,700-DWT DP2 셔틀탱커 공급계약을 체결
-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 조선사와 2020년 4분기 인도로 계약 체결 예정
- Tier 3, BWTS 장착

▲ Celsius Tanker,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발주하며 시장 진입

- 위의 LNG 섹션 참조

▲ 북미 Gaslog,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추가 발주

- 위의 LNG 섹션 참조

▼ 중국 COSCO에 인수된, OOCL의 13,000-teu 10억\$ 중국으로

- 홍콩 OOCL은 2020 규제에 맞춘 neo-panamax 8척 10억\$ 발주를 추진하는데
- 기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단골 고객이었지만,
- 작년 7월 중국 국영 선사 Cosco Shipping Holdings에 인수된 바: Tung 가문이 63억\$에 매각
- Chinese leasing companies를 이용해, 중국 조선사로 발주될 것으로 보임: 후동중화가 유력한 것으로 잡힘
- LNG-Ready 형태로 제작되며, scrubber를 장착하지 않고 저유황유를 사용할 예정
- (17년7월) ▷ COSCO의 OOCL 인수 영향: 단숨에 3위 해운사 등장
- COSCO+OOCL은 2.42백만 TEU와 발주 640천 TEU로 전체 선복량의 11.5%로
- 1등 AP Moller Maersk/Hamburg Sud의 19%, 2등 MSC의 14.7%, 3등에 이어 단숨에 3위가 되며
- 같은 Ocean Alliance의 CMA CMG 2.36백만TEU 및 11.1%를 제친 것
- OOCL은 이미 COSCO, CMA CGM 및 Evergreen과 함께 Ocean Alliance 멤버여서, 합병이 새로운 선대 투자로 이어지지
- 는 않을 전망: COSCO는 이미 9,000~20,000TEU의 34척 건조 중
- TOP 7개 선사의 M/S는 2005년 37%에서 2021년 75%에 이를 전망
- ▽ COSCO+OOCL: 한국 BIG3는 단골고객을 잃는 것
- OOCL은 가장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에서 22,000TEU 5척을 건조한 바 있음: 전통적으로 한국 조선업을 애용
- COSCO는 온전히 중국 아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향후 COSCO+OOCL은 한국 조선의 컨선 발주 고객을 잃게 되는 것
- COSCO는 현재 중국의 Nacks, Dacks에서 19,000teu 6척을 건조 중: Nantong Cosco KHI, Dalian Cosco KHI
- 또한 외교교에서 21,000teu 9척도 건조 중
- 중소형 컨선의 경우 Cosco Zhoushan, Cosco Guangdong을 선호
- ▽ 일본 조선사들도 One Alliance로 재편되었는데, 심지어 중국 조선사에서 건조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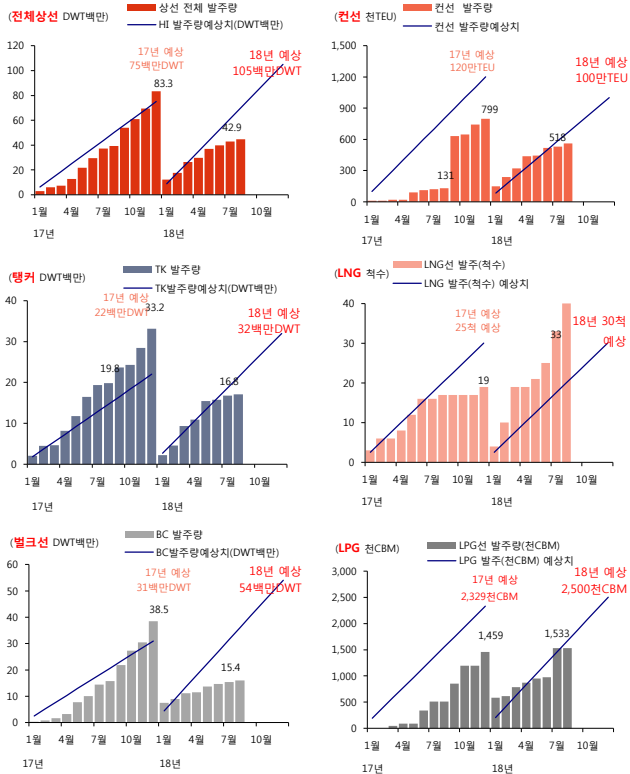
▲ XT Shipping, 현대미포조선에 피더선 2척 추가해 총 6척

- XT Shipping은 현대미포조선에 보유한 옵션 4척 중 2척을 확정해 계약
- 이로써 기존 4척+이번 2척으로 총 6척을 발주: 1호선은 4Q19부터 2Q20까지 인도
- 신조선가는 \$30m을 살짝 밑도는 데, 기존 1,800-teu가 \$27m~\$28m에 scrubber가 \$2m0이 추가됨
- 한편 XT의 2,800-teu는 중국 Jiangnan SY에 발주될 것으로 보임
- (08월1주) ▲ Ofer의 XT Shipping → 현대미포, 2+2척이 아니라 4+4척으로 공식 확인
- Tradewinds가 지난주 보도한 XT의 현대미포조선으로의 1,800teu 2+2척은
- 실제 4척 + 옵션 4척으로 확인: 2020년 납기
- 또한 2,700-teu 6척~10척은 중국 CSBC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함
- (07월5주) ▲ Ofer의 XT Shipping, 최대 \$460m feedership 발주: 미포 2+2 수주
- Idan Ofer(EPS 등 선사 운영)의 XT Shipping은 IMO2020을 대비해, 스크러버를 장착한 피더선 투자 집행
- 최대 14척의 투자를 계획 중인데,
- 먼저 한국 현대미포조선에 1,800-teu 확정 2척 + 옵션 2척을 계약: 신조선가는 \$1.5m의 스크러버 가격을 포함해 \$27m~\$27.5m으로 전해짐
- 2,700-teu는 중국 CSSC와 알려지지 않은 라이벌 조선사에 투자 검토 중이며 6척 + 옵션, 적당 선가는 \$35m으로 전해짐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 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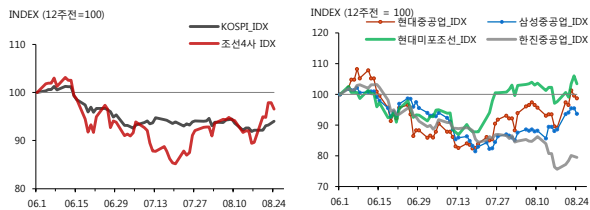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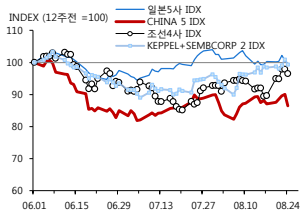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8년07월4주								
BIG6	Hyundai Mipo	18.7.27	유럽	XT Shipping	CONT	2k TEU	2020	4
	Samsung HI	18.7.20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0	2
	Hyundai Samho HI	18.3.1	한국	H-Line Shipping	BULK	325k DWT	2019~2020	2
	HHIC-Phil (Subic Sy)	18.1.1	유럽	CMB	TK	114k DWT	2019	2
	Hyundai HI (Ulsan)	18.5.30	유럽	Elandra Tankers	TK	300k DWT	2019~2020	4
		18.3.1	유럽	Knutsen OAS Shipping	LNG	180k cu.m.	2020	1
한국	Daehan Shipbuilding	18.7.27	한국	Sinokor Merchant	TK	115k DWT	2020	2
	New Times SB	18.5.1	유럽	Golden Ocean Group	BULK	208k DWT	2020	2
	Wuchang SB Group	18.7.25	유럽	Louis-Dreyfus Armat	OFF-기타	#VALUE!	2019~2020	4
	Shanhaiquan SB	18.5.1	유럽	Seatankers Mgmt	BULK	82k DWT	2021	2
	Hin Lee Shipyard	18.5.1	아시아	Cheoy Lee Shipyards	OFF-기타	4k HP	2019	4
	Nantong Xiangyu	18.7.27	일본	Doun Kisen	BULK	64k DWT	2020	2
일본		18.6.1	유럽	Master's Ships Man.	BULK	64k DWT	2019	1
	Onomichi Dockyd	18.7.20	일본	Nissen Kaiun	PTK	50k DWT	2020	2
	Namura Shipbuilding	18.7.19	일본	Seno Kisen	BULK	85k DWT	2020	1
	Oshima Shipbuilding	18.7.26	북미	Foremost Maritime	BULK	85k DWT	2020~2021	2
18년08월1주								
BIG6	Samsung HI	18.7.27	북미	Teekay Shuttle	TK	129k DWT	2020~2021	2
	Hyundai Samho HI	18.8.2	일본	Nippon Yusen Kaisha	LNG	174k cu.m.	2020	1
중국	Huangpu Wenchong	18.5.1	중국	CCCC First Harbor	해양설치		2019	1
		18.3.1	유럽	Cape Shipping	CONT	3k TEU	2020	2
중국	Jinglu Shipyard	18.5.1	유럽	Laskaridis Shipping	BULK	82k DWT	2020	1
		18.2.1	유럽	Laskaridis Shipping	BULK	82k DWT	2020	1
	Nantong COSCO KHI	18.5.1	유럽	Helikon Shpg. Ent.	BULK	61k DWT	2019	1
		18.2.1	일본	Santoku Shipping	BULK	82k DWT	2019	1
	Wuhu Shipyard	18.7.30	중국	Zhuhai Port Shipping	BULK	13k DWT	2019	2
	Damen Changde SY	18.7.24	유럽	VTS Vasiliko	OFF-기타		2018	1
중국	Taizhou Kouan SB	18.3.1	유럽	Schulte Group			2019~2020	2
	Fujian Southeast SB	18.5.1	중국	Zhuhai Port Shipping	BULK	21k DWT	2020	1
	Ningbo Xinle SB	18.7.30	중국	Xinyihai Chemical	PTK	6k DWT	2019	1
~18년08월4주								
BIG6	Hyundai Mipo	18.8.20	유럽	XT Shipping	CONT	2k TEU	2020	2
		18.8.3	한국	SK Shipping	PTK	50k DWT	2019	1
	Samsung HI	18.8.17	유럽	GasLog	LNG	174k cu.m.	2020	2
		18.8.16	유럽	Celsius Tankers	LNG	180k cu.m.	2020	2
		18.7.20	북미	Delos Shipping	GASC	93k cu.m.	2020	3
	Hyundai HI (Ulsan)	18.7.20	북미	Delos Shipping	GASC	93k cu.m.	2020	3
한국		18.6.1	유럽	Zodiac Maritime	CONT	15k TEU	2021	4
		18.5.1	유럽	Cardiff Marine	LNG	174k cu.m.	2020	1
	Daehan Shipbuilding	18.8.24	유럽	Enesel SA	TK	114k DWT	2020	2
	Bohai Shipbld.	18.2.1	Unknown	Berge Bulk	BULK	208k DWT	2020	2
	Jiangnan SY Group	18.8.17	중국	Jovo Group	LNG	80k cu.m.	2021	2
	Jinling Shipyard	18.8.3	유럽	DFDS	RORO	7k Lane m.	2020	1
중국		18.6.30	유럽	TT-Line	RORO	1k Pass.	2021	1
	Wuhu Shipyard	18.8.22	Unknown	Unknown	BULK	64k DWT	2020	1
		18.8.22	중국	Ningbo Runhua	BULK	64k DWT	2020	1
	Shanghai Zhenhua	18.8.8	중국	Changjiang Waterway	OFF-SUPP	6k GT	2021	1
	Haitong Offshore Eng	18.2.1	중국	Unknown Chinese	PTK	10k DWT	2019	1
	New Times SB	18.8.17	한국	Pan Ocean	BULK	64k DWT	2020	2
일본	COSCO Qidong	18.5.1	아시아	Penna Cement	BULK	13k DWT	2020	4
	COSCO HI Yangzhou	18.8.3	유럽	Hermes Marine Mgmt	BULK	82k DWT	2020~2021	4
	Yamanaka Zosen	17.1.1	일본	Oita Kyodo Kaiun	BULK	3k DWT	2018	1
	Honda HI	17.10.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2k DWT	2019	1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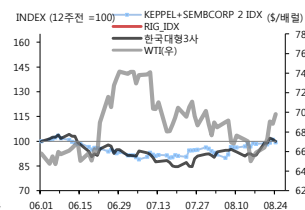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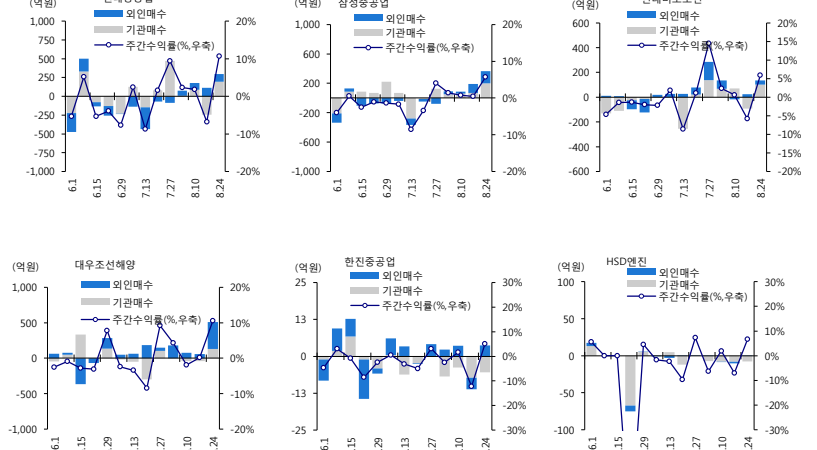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매각, 또 매각...조선사들 보유자산 '눈물의 땀처리'

<https://bit.ly/2PB3bXg>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체푸(CEPU) 광구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 'PT. DSME ENR CEPU' 지분 전량(85%)을 매각
대우조선 관계자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한다는 자구계획안에 따라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금액은 100억대로 추정된다"고 언급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약 3조14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올해 목표치의 약 94%를 달성했으나 전체 금액과 비교하면 이행률은 54% 수준
대우조선해양은 자회사 삼우중공업과 신한중공업, 중국 블록 공장(DSSC), 거제에 있는 복합업무단지와 사원숙소, 마곡지구 부지 등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
삼성중공업은 2016년 5월 약 1조4500억원의 유동성을 올해까지 확보하겠다는 자구계획안을 채권단에 제출
자구계획안 제출 이후 현재까지 화성사업장, 당진공장, 거제사원아파트, 외국인아파트 등을 매각했으며 ...
... 판교에 있는 연구개발(R&D) 센터, 거제호텔, 산청연수소 등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경북 포항시 북구와 경주에 갖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계열사인 현대힘스에 344억6100만원에, ...
... 해양플랜트 공장으로 쓰던 울산 울주군 온산공장 부지도 매각

▶ 현대중공업 보도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 매각 소식에 강세

<https://bit.ly/2vUjupXu>

현대중공업은 해양 2공장(온산공장) 매각을 진행 중
앞서 회사는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온산공장 등 유류 생산부지 매각을 승인
시장은 공장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현대중공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감
▷에쓰오일, 울산 해양플랜트 40만㎡를 석유화학 단지로
<https://bit.ly/2w59UXS>
에쓰오일이 5조원 이상을 투입해 폴리에틸렌(PE)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울산 온산에 짓겠다고 22일 밝힌 바 있는데,
새 공장이 들어설 40만㎡ 부지는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부지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 전환 마무리

<https://bit.ly/2Naq6OI>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현대중공업이 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의 증손회사였던 현대미포조선이 손자회사로 편입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남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주사가 주요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확보하며 안정적인 지주사 체제를 완성했다"며
앞으로 조선의 현대중공업, 정유화학의 현대오일뱅크 등 사업별 주력회사를 중심으로 사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지주사 체제' 마무리한 현대중, 해양사업 손본다...조직 축소·희망퇴직 단행

<https://bit.ly/2weFNfS>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해양부문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힘
희망퇴직 대상자 해양사업부 소속 근속 5년차 이상의 직원이며, 조기정년 대상자는 15년차 이상자 중 만 45세 이상
희망퇴직 단행 전 사측은 무급휴직은 제안했지만, 노조가 유급휴직을 주장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불가피
결국 사측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두 번째로 희망퇴직안을 제시

▷현대중공업 4번째 희망퇴직...노조 27~29일 부분파업 예고

<https://bit.ly/2BjLq2>

노조는 노사가 유급인력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중인데도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오는 27일부터 3일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의

▲ 현대미포조선, 3200억 규모 현대중 지분 매각 완료

<https://bit.ly/2MWhvP>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지분 3.93%(272만558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방식으로 매각했다고 공시: '거래규모는 3200억원 수준
이번 거래는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현대미포조선은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울산 유형자산 매입과 공사손실 충당금 등에 활용할 전망

▲ 현대미포, 중국 조선 제치고 컨선 추가 수주하

<https://bit.ly/2wdZ4PI>

25일 스플래시를 비롯한 외선에 따르면 XT쉬핑(XT Shipping)은 중국 장난조선소가 아닌 현대미포에 1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발주
현대미포는 이들 선박을 총 6000만달러에 수주했으며 오는 2020년 선박들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 수주하는 선박의 척당 선가는 3000만달러 수준
장난조선소는 2000만달러 중반대 가격을 제시했으며 현대미포는 2000만달러 후반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현지 업계에서는 파악
현지 업계 관계자는 "현대미포가 수주한 선박에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스크러버가 추가 장착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선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XT쉬핑은 현대미포와 8척에 달하는 2800TEU급 추가 선박 발주를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1800TEU급 선박 6척을 수주한 현대미포가 이들 선박 역시 추가 수주할 가능성

▶ 삼성중공업 보도

N/A

▶ 대우조선해양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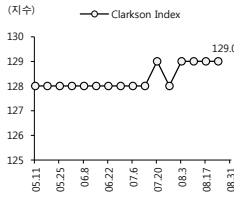
▷대우조선, '3000억원' VLCC 3척 추가 수주 임박

<https://bit.ly/2w6wD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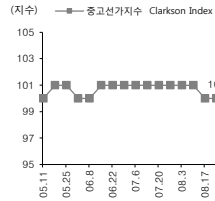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르웨이 헌터그룹 산하 헌터탱커즈는 대우조선과의 계약 옵션행사 결정을 8월에서 9월로 한 달 늦춤
계약대로라면 헌터탱커즈는 이달까지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결정 기간을 연장
업계 관계자는 "통상 선주가 옵션 결정 기한을 깨지 않고 연장한다는 것은 추가 발주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며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언급
기다리고 있는 옵션분 수주까지 대우조선이 손에 쥔 경우 헌터탱커즈로부터 VLCC 총 10척을 수주하는 셈
신조선 계약 규모는 척당 9200만달러. 총 2억7600만달러(약 3000억원)가 될 전망
선박은 오는 2021년 상반기 인도될 예정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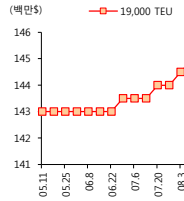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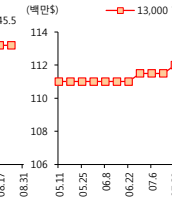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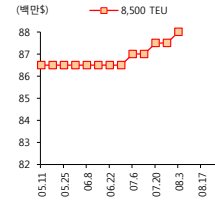
▶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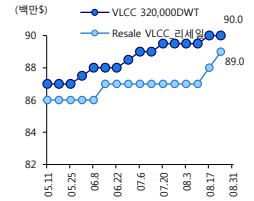
▶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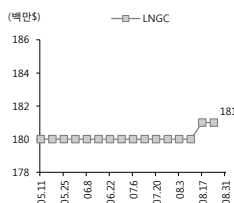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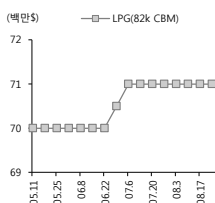
▶ 탱커 VLCC의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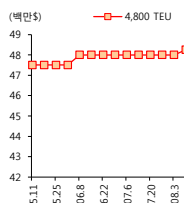
▶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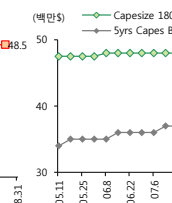
▶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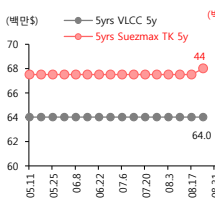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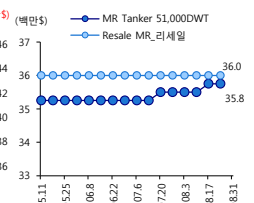
▶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 VLCC, 수에즈막스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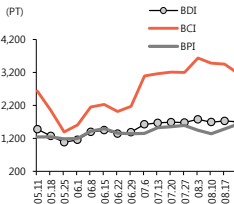


▶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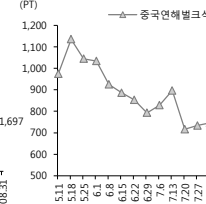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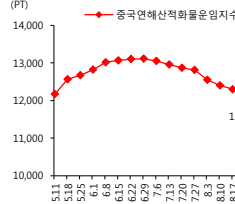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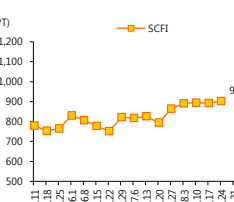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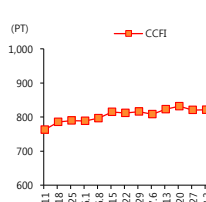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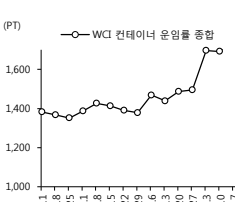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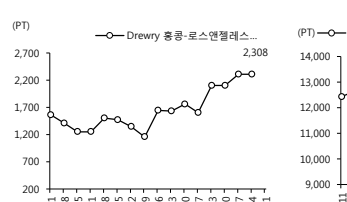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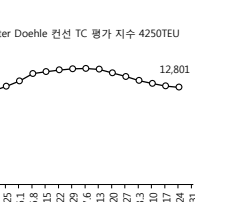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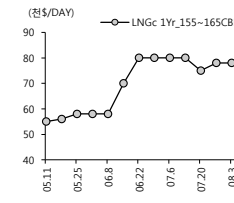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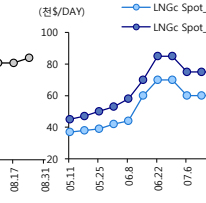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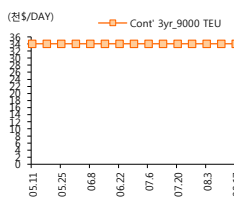
▶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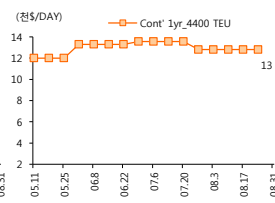
▶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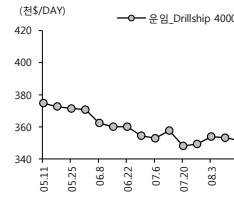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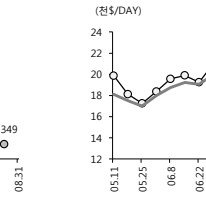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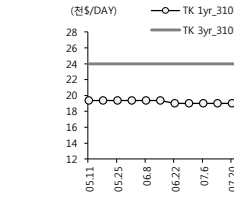
▶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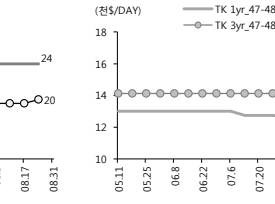
▶ 벌크선 - 케이프



▶ 탱커 - V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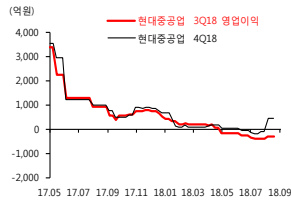


▶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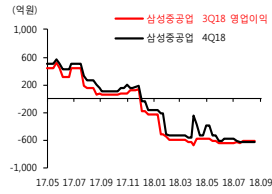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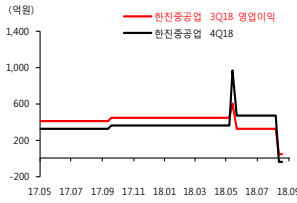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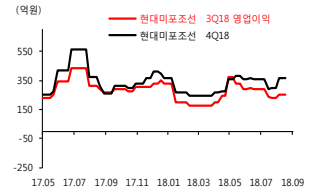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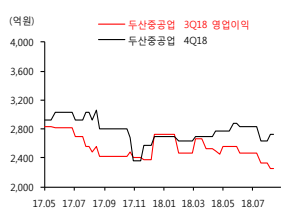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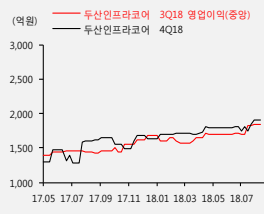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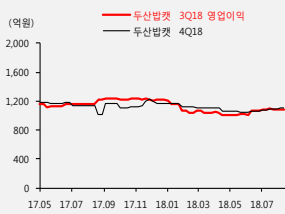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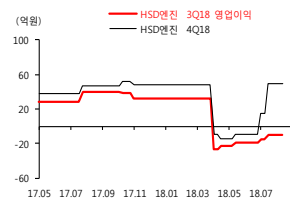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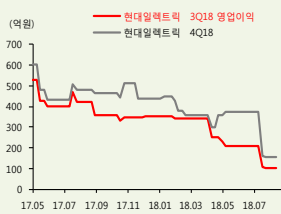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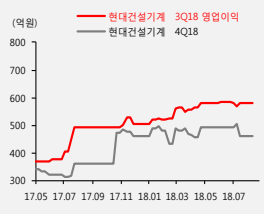
▶ HSD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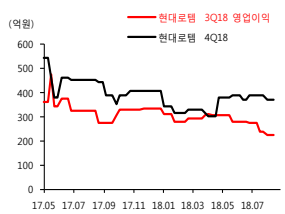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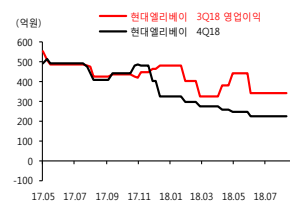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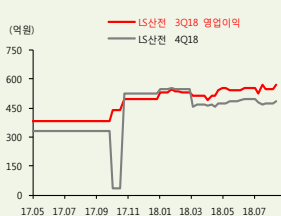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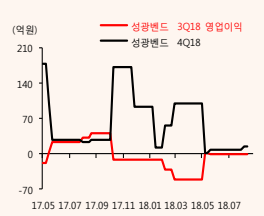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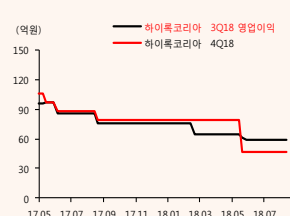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8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7.28	18.08.04	18.08.11	18.08.18	18.08.24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8 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1,591	-1,775	-3,196	-3,163	-4,010	-4,010	-3,855	-4,025	-4,025	적지	적지	-28.3	114,000
	삼성중공업	-440	-474	-375	-369	-446	-446	-446	-446	-446	적지	적지	-15.7	7,000
	현대미포조선	2,347	2,489	5,949	7,686	6,491	6,491	6,538	6,380	6,380	-1.7%	-2%	14.9	95,100
	한진중공업	-509	-16	9	-75	-132	-132	-132	-551	-551	적지	적지	-4.7	2,595
두산	두산중공업	1,240	1,154	851	707	538	476	476	444	444	-3.7%	-1.7%	33.0	14,650
	두산인프라코어	1,253	1,255	1,500	1,438	1,545	1,560	1,560	1,566	1,566	9%	1%	6.3	9,840
기계	HSD엔진	-122	-148	-136	-236	-218	-218	-218	-218	-261	적지	적지	-14.0	3,670
	현대건설기계	15,351	14,839	13,657	13,782	12,858	12,639	12,658	12,658	12,658	-8%	-2%	9.6	122,000
	현대일렉트릭	7,642	7,556	4,840	3,201	1,753	1,327	1,327	1,327	1,327	-5.9%	-2.4%	48.2	63,900
	LS산전	4,626	4,476	4,804	4,965	5,095	5,105	5,133	5,229	5,178	4%	2%	13.7	71,200
방산	현대엘리베이터	3,877	3,595	2,558	1,915	1,915	1,915	1,915	1,915	1,915	0%	0%	54.3	104,000
	현대로템	757	714	567	413	359	359	309	309	309	-25%	-14%	100.5	31,050
	한국항공우주	1,280	1,228	1,223	1,311	1,371	1,371	1,371	1,239	1,254	-4%	-9%	32.2	40,4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12	911	635	636	567	519	495	663	663	4%	17%	36.9	24,450
피팅	LIG넥스원	2,466	2,366	2,223	2,180	2,239	2,239	2,289	1,720	1,720	-21%	-23%	18.3	31,550
	성광벤드	-38	-38	-70	-55	-46	-46	-46	-73	-73	적지	적지	-158.7	11,650
	태광	302	302	302	302	325	325	325	325	325	7%	0%	41.4	13,450
	하이록코리아	1,413	1,413	1,322	1,297	1,297	1,297	1,186	1,186	1,186	-8%	-8%	20.4	24,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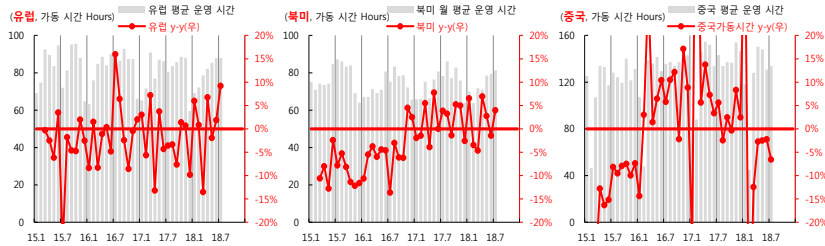
그룹	종목	2018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7.28	18.08.04	18.08.11	18.08.18	18.08.24	2018	2019	2018 PBR	
조선	현대중공업	240,578	174,921	169,511	170,269	169,894	169,894	173,216	174,172	174,172	-2%	0%	0.7	
	삼성중공업	20,352	19,596	12,386	12,439	12,234	12,234	12,234	12,234	12,234	-4%	-1%	0.6	
	현대미포조선	126,280	120,913	118,112	119,564	116,627	116,627	122,627	116,459	116,459	5%	4%	0.8	
	한진중공업	6,105	6,105	6,133	5,338	5,338	5,338	5,338	4,514	4,514	-12%	-38%	0.6	
두산	두산중공업	29,190	28,884	30,546	28,566	28,005	28,242	28,242	28,596	28,596	2%	5%	0.5	
	두산인프라코어	10,899	10,524	9,877	9,537	9,632	9,589	9,635	9,703	9,703	16%	16%	1.0	
기계	HSD엔진	7,612	7,613	7,683	13,937	11,040	11,040	11,040	11,040	9,267	-3%	-4%	0.4	
	현대건설기계	129,371	135,151	139,230	136,338	135,209	132,950	132,950	132,950	132,950	10%	10%	0.9	
	현대일렉트릭	106,687	111,365	108,247	107,159	105,367	105,268	105,268	105,268	105,268	1%	4%	0.6	
	LS산전	42,954	42,576	42,835	42,862	42,948	42,969	42,969	43,062	43,004	12%	13%	0.0	
	현대엘리베이터	36,829	34,152	32,217	41,903	41,903	41,903	41,903	41,903	41,903	5%	6%	2.5	
	현대로템	16,526	16,557	16,424	16,178	16,129	16,129	16,065	16,065	16,065	2%	6%	1.9	
	한국항공우주	12,950	12,897	12,551	12,142	11,856	11,856	11,856	11,660	11,660	11%	13%	3.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2,105	42,135	41,295	41,271	41,143	41,143	41,012	41,255	41,255	2%	3%	0.6	
방산	LIG넥스원	29,179	28,622	29,139	28,904	28,924	28,924	28,780	27,573	27,573	6%	10%	1.1	
	성광벤드	15,972	15,972	15,995	15,988	15,988	15,988	15,988	15,934	15,934	0%	1%	0.7	
피팅	태광	17,110	17,110	17,110	17,110	16,473	16,473	16,473	16,473	16,473	2%	2%	0.8	
	하이록코리아	24,832	24,832	25,123	25,079	25,079	25,079	24,896	24,896	24,896	5%	6%	1.0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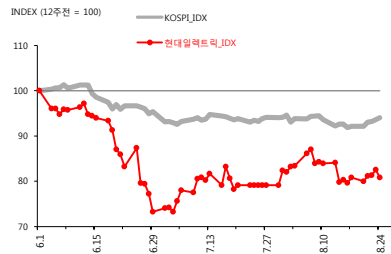
지난주의 그림

▶ KomTraxu 굴삭기 가동시간: 북미, 유럽 호조, 중국은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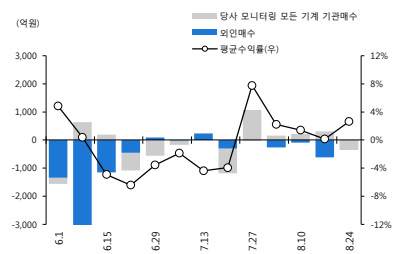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할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율



기계 업종 뉴스

큰 기계들

▷ 두산그룹 테크포럼 개최...스마트팩토리 관련 등 250여개 논문 발표

<https://bit.ly/2MMivEP>

두산그룹은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흑석동 중앙대에서 '두산 테크포럼 2018'을 개최

올해에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 영국, 체코, 인도, 베트남 등에서 두산 그룹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

▽ 英 당국, '원전 안전사고' 佛기업-두산발폭 기소 방침

<https://bit.ly/2Mv2Spv>

영국 원전 규제기관인 원전규제국(ONR)은 22일(현지시간) ...

... 프랑스 국영 에너지기업 EDF의 자회사인 EDF에너지와 두산중공업의 해외 자회사인 두산발폭을 건강 및 안전 문제로 기소할 방침임을 통지

양사에 적용된 혐의는 지난 4월 EDF 측 소유인 '헝클리 포인트 B'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

... 이 사건으로 두산발폭 직원 한 명이 다쳤다고 언급

당시 사건으로 근로자나 시민에 대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험은 없었다고 밝힘

△ 현대로템, 3천614억원 규모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수주

<https://bit.ly/2BrnDxl>

현대로템은 총 3천615억원 규모의 서울시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을 수주했다고 20일 공시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시 성동구와 노원구를 연결하는 13.4km 길이의 철도 노선과 16개 정거장, 차량기지 1개소를 구축하는 내용

오는 2024년 완공 예정

현대로템이 이번에 수주한 경전철은 차량 내 중앙통제시스템에 따라 자동 운행해 기관사가 필요 없는 무인운전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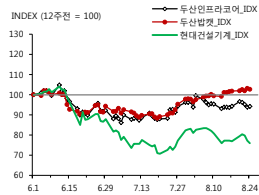
2량 1편성으로 구성돼 총 50량을 납품하며 편성당 정원은 172명

현대로템은 이번엔 경전철 차량뿐 아니라 열차 운행을 위한 제반적인 전기·기계 시설도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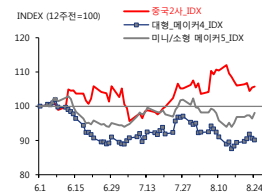
주요 공급설비로는 무인운전을 위한 관제설비와 신호설비, 스크린도어 장치, 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검수장비 등



한국시장 성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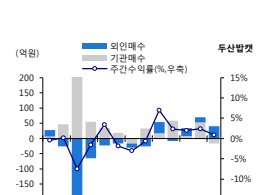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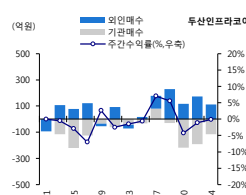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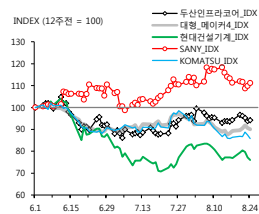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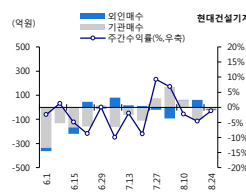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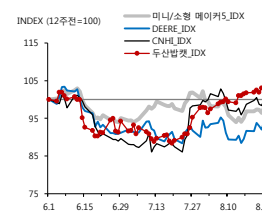
건설장비 메이커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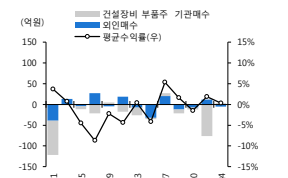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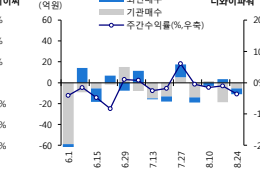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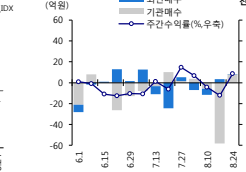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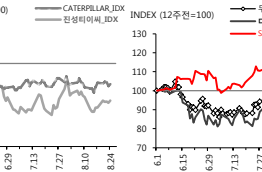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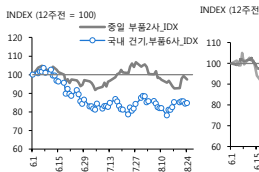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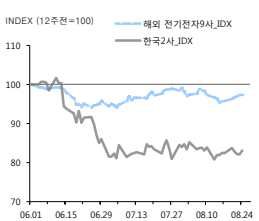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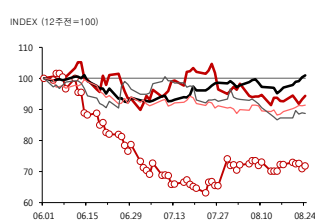
주식) 부품주4사: 진성티이씨, 디와이파워, 중국, 동일금속

중전기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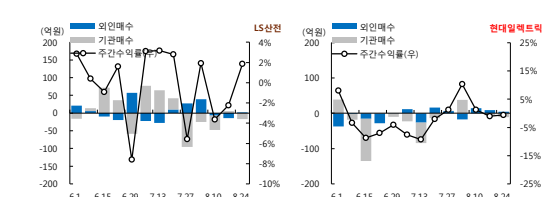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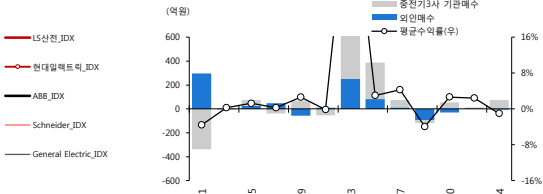


중전기 회사들 주가 Index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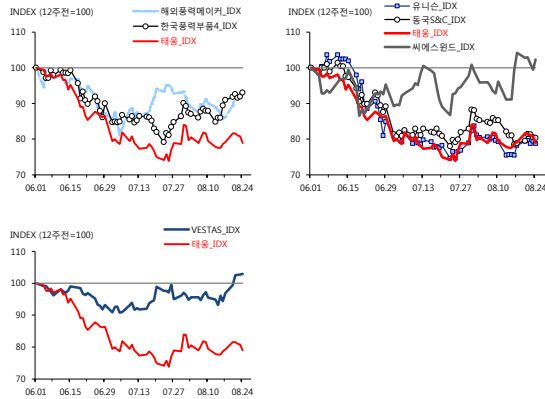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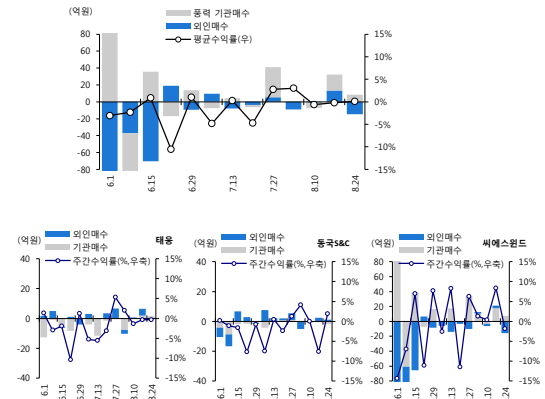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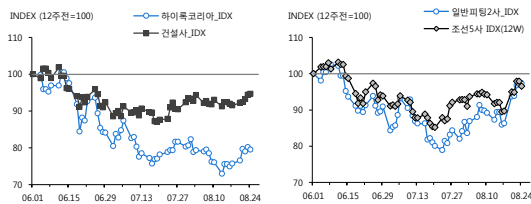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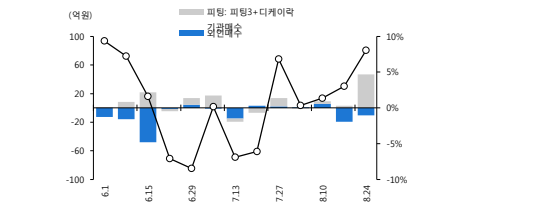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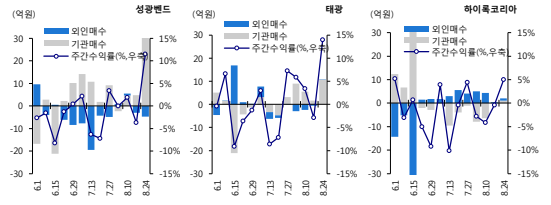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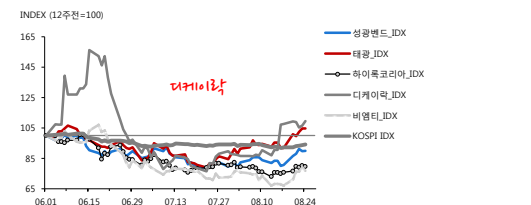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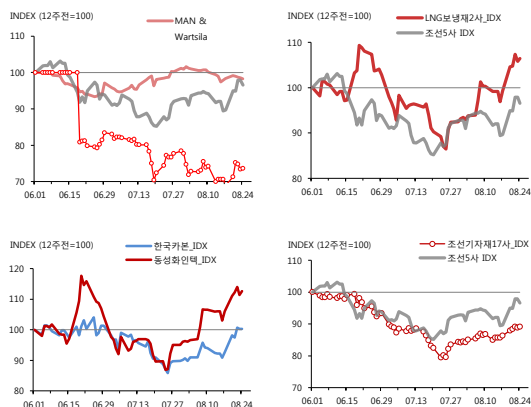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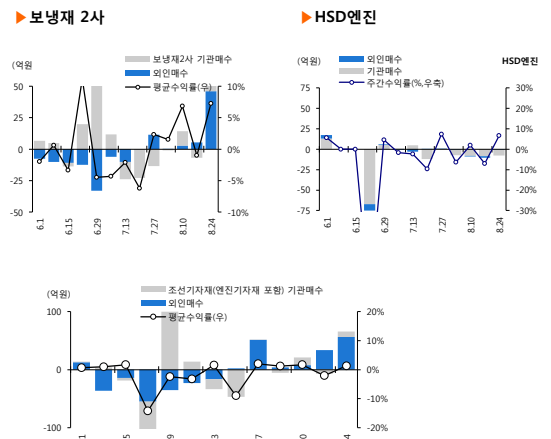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의 엔진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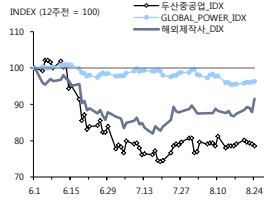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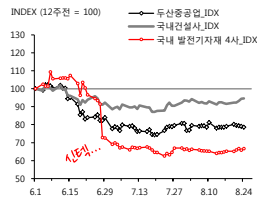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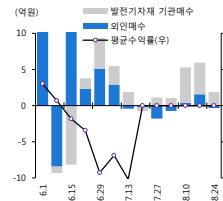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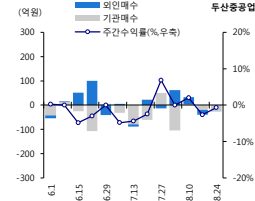


발전업 수급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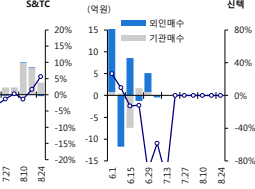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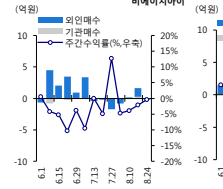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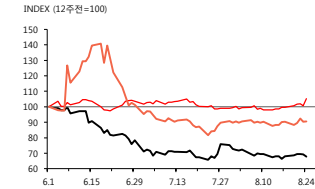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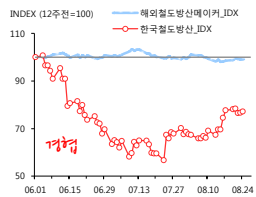
주식: 비에이지아이, S&T, 한솔신력,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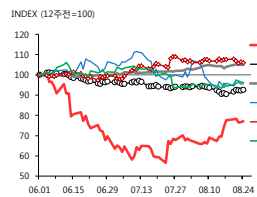


철도/승강기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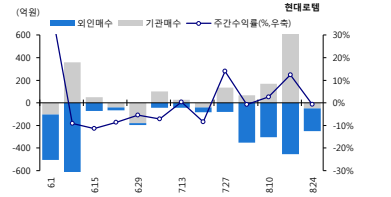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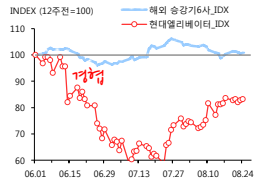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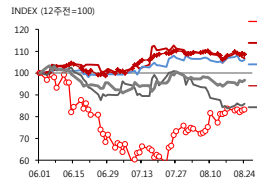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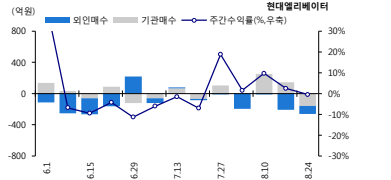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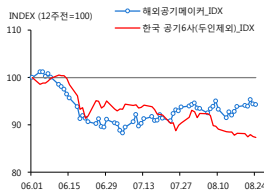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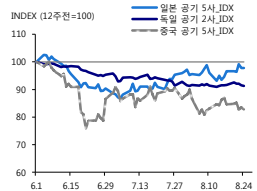


공작기계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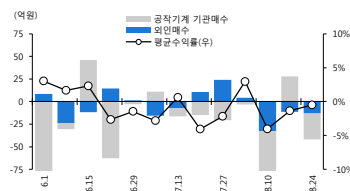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중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광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중립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역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자의견 비율(%)	93.9 %	6.1 %	-